

2018년 8월 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개별 기업이슈에 힘입어 상승

페이스북 +4.45%, 버크셔해서웨이 +2.91%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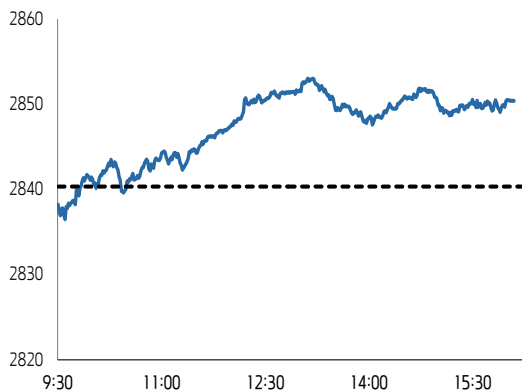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및 중동 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특히 새로운 사업을 발표한 페이스북(+4.45%)과 실적 개선을 발표한 버크셔해서웨이(+2.91%)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이를 주도. 다만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은 무역분쟁과 중동 리스크 여파로 보험권 혼조세를 보이는 등 관망세가 짙은 양상(다우 +0.16%, 나스닥 +0.61%, S&P500 +0.35%, 러셀 2000 +0.65%)

미 증시는 ①개별 기업 이슈 ②미-중 무역분쟁 ③미국의 대 이란 제재 시작 등으로 변화. 중국은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대 미 무역분쟁 관련 내용 발표. 지난 금요일 중국 상무부는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시사. 인민은행은 위안화 약세를 제어하기 위해 선물환 증거금 20% 발표하는 등 무역분쟁 관련 냉온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에 대해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 정부의 무역분쟁 출구 전략 가능성을 제기. 시장은 향후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 관련 협상 자리에 언제 앉을지 여부에 주목하며 관망하는 양상.

미국이 대 이란 제재 개시 강행하자 이란과 거래하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반응에 주목. EU 와 독일, 영국, 프랑스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부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란과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겠다고 발표. 더불어 중국도 11 월 4 일부터 시행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을 무시하고 이란의 원유 수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대해 반발. 시장참여자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제재를 언급하는지 여부에 주목했는데 미-EU, 중국 등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이 또한 관망 요인

반면, 개별 기업 이슈는 지수 상승 요인. 페이스북은 은행들과 고객 정보 공유해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발표하자 급등.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새로운 사업 부문을 발표했다는 점에 시장은 우호적인 반응. 버크셔해서웨이와 타이슨푸드는 2분기 이익이 크게 개선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하며 지수 상승 주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86.50	-0.05	홍콩항셱	27,819.56	+0.52
KOSDAQ	781.41	-0.94	영국	7,663.78	+0.06
DOW	25,502.18	+0.16	독일	12,598.21	-0.14
NASDAQ	7,859.68	+0.61	프랑스	5,477.18	-0.03
S&P 500	2,850.40	+0.35	스페인	9,722.70	-0.18
상하이종합	2,705.16	-1.29	그리스	759.63	-0.27
일본	22,507.32	-0.08	이탈리아	21,580.18	-0.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강세

페이스북(+4.45%)은 금융권과 손잡고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이에 힘입어 아마존(+1.34%), 넷플릭스(+2.28%), 애플(+0.52%) 등은 동반 상승 했다. 다만 알파벳(-0.04%)은 관련 사업에 대해 페이스북과의 경쟁 가능성이 제기되며 약보합에 머물렀다. 버크셔해서웨이(+2.91%)은 양호한 실적이 발표 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JP모건(+0.03%), 웰스파고(+0.10%), BOA(+0.03%), 씨티그룹(+0.01%) 등 여타 금융주는 장단기 금리차 축소 여파로 보험권에 머물렀다.

마이크론(-0.27%)은 전일 SK하이닉스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인텔(-0.06%)도 동반 하락 했다. 다만, 여전히 하반기 반도체 수요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데 힘입어 하락폭이 축소 되었다. 한편, AMAT(+1.31%), 램리서치(+0.54%) 등 반도체 장비 업종도 상승 했다. 타이슨푸드(+3.27%)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디즈니(+1.62%)는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반면, 테슬라모터스(-1.77%)는 다임러가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힌 여파로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67%	대형 가치주 ETF	+0.24%
에너지섹터 ETF	-0.04%	중형 가치주 ETF	+0.21%
소매업체 ETF	+0.60%	소형 가치주 ETF	+0.31%
금융섹터 ETF	+0.53%	배당주 ETF	+0.04%
기술섹터 ETF	+0.54%	변동성 ETF	-3.50%
소셜 미디어업체 ETF	+0.64%	대형 성장주 ETF	+0.48%
인터넷업체 ETF	+1.51%	중형 성장주 ETF	+0.72%
리츠업체 ETF	-0.21%	소형 성장주 ETF	+0.89%
주택건설업체 ETF	+0.25%	신흥국 고배당 ETF	-0.65%
바이오섹터 ETF	-0.20%	신흥국 저변동성 ETF	-0.39%
헬스케어 ETF	+0.18%	하이일드 ETF	+0.06%
곡물 ETF	+0.74%	물가연동채 ETF	+0.02%
반도체 ETF	+0.53%	Long/short ETF	-0.4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7.93	+0.34%	-2.29%	-1.76%
소재	371.64	+0.10%	+0.16%	+0.59%
산업재	637.76	+0.12%	+0.85%	+3.30%
경기소비재	895.72	+0.67%	+1.64%	+0.84%
필수소비재	557.46	+0.06%	+1.89%	+4.38%
헬스케어	1,039.95	+0.14%	+2.15%	+3.77%
금융	468.48	+0.43%	+0.31%	+3.44%
IT	1,284.60	+0.59%	+3.61%	+2.20%
통신	151.03	-0.09%	+0.18%	+1.24%
유틸리티	270.39	+0.13%	+1.92%	+3.49%
부동산	206.38	-0.24%	+3.12%	+1.3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별 차별화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는 0.44% MSCI 신흥 지수도 0.77%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0.30pt 상승한 296.1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6.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 영향을 받아 하락 전환하며 마감 했다. 그러나 중국 증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던 무역분쟁은 중국 정부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글로벌 증시에서는 영향력이 제한 되었다. 한편, 유럽과 미국 증시도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 영향력이 제한된 가운데 관망세가 짙은 양상이었다. 미국의 경우 개별 기업 이슈에 힘입어 상승 했을 뿐 관련 기업을 제외하면 보험권 혼조세를 보였다.

한편, 전일에 이어 중국 상품선물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관련주의 변화가 예상된다. 전일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공급측 개혁 심화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철광석 가격이 4% 넘게 급등 하는 등 상품가격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중국 시간외 거래를 통해 상품 가격들이 1~2% 내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 CME 와 영국 LME 시장에서 상품가격들이 달러 강세 여파로 부진한 점을 감안 변화는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 소식도 주목된다. 비록 개인 정보 공유를 은행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성공 여부는 미지수 이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에 힘입어 페이스북이 강세를 보이자 'FANG' 기업들 또한 동반 상승하는 힘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요인에 힘입어 한국 증시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미국 7 월 컨퍼런스보드 고용동향 지수는 전월(108.70) 보다 개선된 109.90 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로도 5.4% 개선 되는 등 고용시장 개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였다.

독일 6 월 공장 수주는 전월 대비 4.0% 감소 되었다. 예상(mom -0.3%)치는 물론 전월 발표된 수치(mom +2.6%)을 크게 하회했다.

유로존 8 월 Sentix 투자자신뢰지수는 전월(12.1) 보다 개선된 14.7 로 발표 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 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가 시작되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여파로 상승 했다.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7 월 산유량이 예상과 달리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지수는 고용지표 개선 및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약세를 보였다. 이탈리아 일부 장관이 반파시즘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EU 와의 마찰이 확대 우려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파운드화는 영국이 EU 와 브렉시트 관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터키 리라화는 달러 대비 4% 넘게 급등 했는데 중앙은행이 기준율 인하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제외한 여타 신흥 환율은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힘입어 단기물은 상승 했다. 그러나 장기물은 무역분쟁 우려감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리스크 부각된 점도 부담이 되며 하락하는 등 혼조 양상을 보였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여타 비철 금속은 달러화 강세 여파로 부진했다. 다만, 일부 품목은 반등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합권 혼조 양상이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59%, 철근도 1.6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9.01	+0.76	-1.60	Dollar Index	95.367	+0.22	+1.08
브렌트유	73.75	+0.74	-2.38	EUR/USD	1.1556	-0.10	-1.28
금	1,217.70	-0.45	-1.12	USD/JPY	111.39	+0.13	+0.32
은	15,348	-0.74	-1.22	GBP/USD	1.2946	-0.42	-1.42
알루미늄	2,043.00	+0.74	-2.44	USD/CHF	0.9964	+0.23	+0.83
전기동	6,133.00	-1.18	-1.87	AUD/USD	0.739	-0.19	-0.23
아연	2,569.00	-2.36	+0.47	USD/CAD	1.3003	+0.09	-0.25
옥수수	385.25	+0.26	+1.05	USD/BRL	3.7317	+0.66	+0.03
밀	597.25	+3.02	+5.43	USD/CNH	6.8662	+0.29	+0.58
대두	893.50	-0.97	+0.28	USD/KRW	1124.00	-0.32	+0.34
커피	108.75	+0.93	-2.38	USD/KRW NDF1M	1126.05	+0.25	+0.7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941	-0.75	-3.15	스페인	1.394	-2.50	-2.90
한국	2.565	-1.00	-0.60	포르투갈	1.743	-2.70	-2.10
일본	0.110	0.00	+0.80	그리스	3.966	-9.40	+10.70
독일	0.389	-1.90	-5.70	이탈리아	2.901	-2.00	+11.90